

2022년 11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12. 21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11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.7% 감소

- 11월의 수출증감률은 시장예상치(△3.5%)를 하회하였고, 지난달에 이어 수출총액은 3,00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 급감
- 11월 무역수지는 698.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50억 달러 이상 감소

○ (수입) 11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0.6% 감소

- 11월의 수입증감률은 최근 2년 내 가장 낮은 △10%대 감소폭을 보임
- 11월 제조업 PMI는 2개월째 기준선(50)을 하회했으며, 반제품 수입 수요가 대폭 감소

1 수출입 동향

-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8.7% 감소한 2,960억 9천만 달러(약 386조 원), 수입액은 10.6% 감소한 2,262억 5천만 달러(약 295조 원), 무역수지는 698억 4천만 달러(약 91조 원) 흑자를 기록
 - 11월 수출증감률은 지난달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, 11월 수입 증감률 역시 최근 2년 내 가장 낮은 △10%대 감소폭을 보임. 1~11월 기준 무역수지는 8,020억 달러(약 1,045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39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
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	'22.상반기	'22.9월	'22.10월	'22.11월 (당월)	'22.1~11월 (누계)
수 출	33,630 (29.8)	17,283 (13.9)	3,227 (5.7)	2,983.7 (△0.3)	2,960.9 (△8.7)	32,917.1 (9.1)
수 입	26,871 (30.1)	13,487 (5.8)	2,380 (0.3)	2,132.2 (△0.7)	2,262.5 (△10.6)	24,896.7 (2.0)
수 지	6,759	3,796	847	851.5	698.4	8,020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11월 수출입총액은 5,223억 4천만 달러(약 681조 원)로 전년 동월대비 9.5% 감소했으며,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.9%, 9.1%, 2.0% 증가세를 보임
 - (수출) 11월 수출증감률(Δ 8.7%)은 시장예상치(Δ 3.5%)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11월 당월 수출총액은 지난달에 이어 3,00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 급감
 - 11월 하이테크 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4% 감소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, 자동차 품목 수출은 호황세를 이어감
 - 주요 교역국 중 ASEAN을 제외하고 미국, EU, 일본, 한국으로의 11월 당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모두 하락
 - (수입) 수입 감소폭이 큰 업종은 주로 LCD 디스플레이 제조업, 데이터처리 장비제조업, 섬유업, 철강업 등이며 반제품 수요가 대폭 감소
 - 원자재 수입가격이 지속 하락하여 금액측면의 수입성장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기계 및 전자제품을 위주로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
- 12월 들어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급증하는 감염 확산세, 의료체제 마비 등의 여파는 공급망 차질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
 - 중국 내 가파른 확산세로 운송업자 등 물류종사자의 근무 공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연말까지 공급망 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됨
 -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수출모멘텀(성장 동력)이 가장 약할 것으로 예상하며, 2023년 수출은 연간 7~8%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
 - 한편, 석유수출국기구(OPEC)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철회로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과 일대일로 회원국 간의 11월 무역액은 전년 동월대비 20.4%(위안화 기준) 증가했으며, 그중 수출액은 21%, 수입액은 20% 증가 - 11월 누계 기준, 중국의 최대 무역국은 ASEAN(비중 15.4%)이며, 이어서 EU(비중 13.5%), 미국(12%), 한국(5.8%)순으로 나타남 - 1~11월 민간기업(비중 50.6%)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3.6% 증가 - 같은 기간 일반무역(비중 63.8%), 가공무역(비중 20.2%) 수출입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.4%, 8.4% 증가
	 중신증권 (中信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0월 대비 약 28% 하락하였으며, 이는 수요 감소로 대외 무역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- 11월 하이테크 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4% 감소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. 반면, 자동차 수출은 호황세를 이어갔고,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두배 이상 증가 - 수입 감소 폭이 큰 업종은 주로 LCD 디스플레이 제조업, 데이터처리 장비 제조업, 섬유업, 철강업 등이며, 11월 제조업 PMI가 수축구간에서 더욱 하락하여 반제품 수요가 대폭 감소 - 또한,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세가 이어져 금액측면의 수입성장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기계 및 전자제품을 위주로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점차 감소 추세
	 동방증권 (东方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5% 감소하였으며, 미국 월마트의 재고 증가로 지난 8월 대량 주문을 취소한 것이 연쇄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분석 -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, 올해 중국산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 주문건수는 약 20~30%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 11월 수입 하락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- 향후 에너지 부족이 유럽의 수입수요를 더욱 억제할 수 있으며, 코로나 지속 확산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큼
해외	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높은 인플레이션이 선진국 수요를 위축시켜 글로벌 무역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중국의 수출입 감소세는 극명하게 나타남 - 11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월대비 25% 감소하였고, 폭스콘 정저우 공장 폐쇄 등은 전자기기 수출 감소를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힘 - 11월 집적회로 및 반도체 수입량은 25% 이상 감소했고, 10월부터 확대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, 시용 칩 수출금지 조치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-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경우, 운송업자 등 물류 인력 공백이 커질 수 있고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
	 월스트리트 저널 (WSJ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 수출입은 최근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였고, 주요 원인은 글로벌 수요 및 내수 약세,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생산 제조 차질 등이 있음 - 11월 중국 무역흑자액은 시장예상치(약 781억 달러)를 하회하였으며, 상하이 지역 봉쇄가 절정이던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- 글로벌 경기 침체로 향후 몇 개월 동안 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-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, 부동산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내수가 점차 회복 할 것으로 예상되나, 내년 하반기까지는 저성장 기조가 전망됨
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1월 수출증감률은 △8.7%로 시장예상치(△3.5%)를 크게 하회하며, 2020년 2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함 - 약 3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제로코로나 방역조치의 경제손실은 막대하며, 수입업자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음 - 애플사(Apple)의 공급업체인 폭스콘(Foxconn)은 정저우 공장 폐쇄 등 영향으로 11월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11.4% 감소했다고 밝힘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 12. 8)

3 1~11월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ASEAN(누계 수출증감률 19.1%), EU(11.5%) 및 미국(3.4%), 중남미(13.7%), 아프리카(11.7%), 인도(23.9%) 등 주요국가 및 지역으로의 누계 수출액이 증가
 - 한국(11.8%), 일본(5.1%), 베트남(6.8%)으로의 누계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△13.2%)은 감소
 - * 11월 당월 수출증감률: ASEAN(5.2%), EU(△10.6%), 미국(△25.4%), 일본(△5.5%), 한국(△11.7%)
 - 수입의 경우, 러시아(누계 수입증감률 47.5%) ASEAN(4.6%), 중남미(4.7%)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누계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EU(△7.3%), 일본(△9.6%), 호주(△13.7%)로부터의 누계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 - 중국의 對한국 누계수입은 4.4% 감소하였고, 11월 당월 수입도 25.7% 감소

< 11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11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11월 누계증감률
1	*ASEAN	503	19.1	*ASEAN	370	4.6
2	*EU	448	11.5	*EU	229	△7.3
3	미국	408	3.4	*중남미	194	4.7
4	홍콩	272	△13.2	대만	174	△2.9
5	*중남미	196	13.7	미국	165	△0.5
6	일본	145	5.1	한국	154	△4.4
7	*아프리카	143	11.7	일본	142	△9.6
8	한국	130	11.8	호주	118	△13.7
9	베트남	129	6.8	러시아	105	47.5
10	인도	95	23.9	말레이시아	102	14.1

출처: 중국 해관총서 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4%)의 누계수출액은 4.2% 감소하였고, 2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3.2%), 3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2.8%)의 누계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4.3%, 4.7% 증가
 - 수입 1위 품목인 원유(비중 10.3%)는 수량이 1~11월 누계 기준으로 1.4% 감소했으나 금액은 글로벌 유가의 장기간 상승 영향으로 48.2% 급증

- 2위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9.8%)는 누계수량이 14.4% 감소했으나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0.6% 증가. 3위 철광석 및 정광(비중 3.0%)은 수량과 금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수량은 2.1% 감소, 금액 역시 29.3% 감소
- 자동차(새시 포함) 품목의 수입액은 전월 대비 1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며 지난달 순위 7위에서 이번달 12위로 하락했고 TOP10 순위권에 들지 못했음

< 11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11월 누계증감률	금액	1~11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80	△4.2	4.4
2	의류 및 부자재	-	-	131	4.3	3.2
3	방직실 및 직물	-	-	113	4.7	2.8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01억 개	△11.7	111	2.2	2.7
5	휴대폰	6,657만 대	△11.7	110	1.5	2.7
6	플라스틱제품	-	-	92	10.6	2.3
7	자동차(새시 포함)	37만 톤	54.9	77	73.1	1.9
8	강재	559만 톤	0.4	74	22.4	1.8
9	자동차부품	-	-	67	8.4	1.7
10	가전제품	26,705만 대	△12.4	65	△12.6	1.6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11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11월 누계증감률	금액	1~11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원유	4,674만 톤	△1.4	224	48.2	10.3
2	반도체 및 집적회로	405억 개	△14.4	214	0.6	9.8
3	철광석 및 정광	9,885만 톤	△2.1	661	△29.3	3.0
4	천연가스	1,032만 톤	△9.7	52	36.6	2.4
5	식량(곡류)	1,084만 톤	△11.8	45	12.0	2.1
6	대두	735만 톤	△8.1	35	15.2	1.6
7	동광석 및 정광	241만 톤	8.6	33	3.4	1.5
8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278만 톤	△10.4	32	△4.6	1.5
9	미단조 동 및 동재	539,902톤	8.5	31	9.8	1.4
10	석탄 및 갈탄	3,231만 톤	△10.1	31	28.5	1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4 주요 경제지표

- 11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의 49.2보다 감소한 48.0 기록,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년 동월대비 1.3% 하락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1.6% 상승
 - 11월 PMI는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기준선(50)을 하회하였으며, 4월 이후 최저치 기록. 주요 원인에는 코로나 확산 여파에 따른 제조업 생산 둔화, 제품 주문량 감소, 물류 지연 등이 있음
 - 11월 CPI는 1.6%로 8개월 만에 1%대로 하락하였으며 육류 등 식품 가격 상승세가 전월 대비 둔화됨. 11월 PPI는 △1.3%로 지난달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주요 산업재 중 철금속, 비금속, 건축자재 가격 하락 영향이 반영됨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20	2021	'22. 상반기	9월	10월	11월	
경제성장률(%)	2.2	8.1	2.5	3.9(Q3)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△3.9	12.5	△0.7	2.5	△0.5	△5.9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2.9	4.9	6.1	5.9	5.8	5.3	
산업생산 증감률(%)	2.8	9.6	3.4	6.3	5.0	2.2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(%)	51.9	50.3	50.2	50.1	49.2	48.0	
소비자 물가지수 CPI (%)	2.5	0.9	1.7	2.8	2.1	1.6	
생산자 물가지수 PPI (%)	△1.8	8.1	7.8	0.9	△1.3	△1.3	
실업률(기말, %)	5.2	5.1	5.7	5.5	5.5	5.7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444 (4.5)	1,735 (20.2)	1,124 (21.8)	168.9 (9.1)	130.4 (2.3)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2,165	32,502	30,173	30,290	30,524	31,175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74	6.4512	6.4810	6.9621	7.1287	-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26 (△2.7)	1,629 (22.9)	814 (6.9)	134 (△6.5)	122 (△15.7)	114 (△25.5)
	수 입	1,089 (1.5)	1,386 (27.3)	772 (19.7)	127 (11.1)	134 (11.9)	121 (△11.1)
	수 지	237	243	42	6.9	△12.5	△7.6

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 주 : 11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